

쌀농사 비료-농약비용 모두 하락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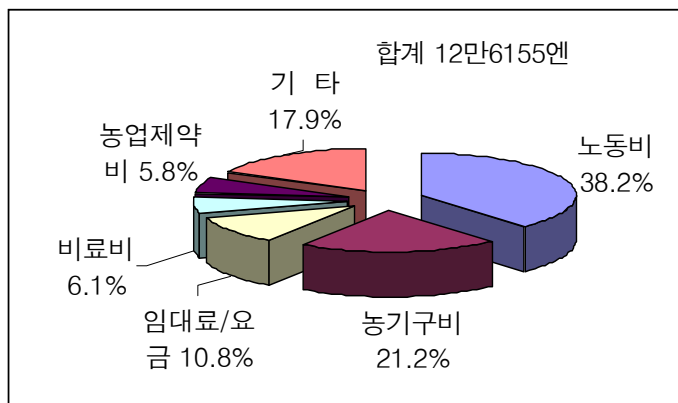
일본, 2002년 방제작업 위탁비 증가 ... 농약 사용량은 큰 변화 없어

2002년 일본의 쌀 생산 판매농가의 10a당 비료비용은 전년대비 1.6% 하락한 7705엔, 농약비용(농업약제비)은 2.3% 줄어든 7263엔으로 나타났다. 비용비율은 각각 6.1%, 5.8%로 2001년에 비해 1%p 하락했다.

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, 방제 작업위탁이 진전돼 임대료 및 요금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. 2002년산 쌀의 노동비와 물재비를 합한 10a당 비용은 3.3% 줄어든 12만6155엔으로, 비용구성비의 38.2%를 차지하는 노동비가 전년대비 6.9%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. 또 농업구성비에서 농기구비가 2.9% 하락해 2만6707엔을 기록했으며 비료비, 농약비도 마이너스로 나타났다.

60kg당 비용은 2.9% 하락한 1만4241엔, 농업구성비 3015엔, 비료비 869엔, 농약비 820엔으로 집계됐다.

일본의 쌀 생산비용의 구성비율(10a당)



비용 중 상승한 것은 임대료 및 요금으로, 10a당 1만3597엔, 구성비가 0.7% 상승한 10.8%에 달했다. 60kg당에서도 4.1% 증가한 1535엔으로, 방제와 건조조제 등의 작업위탁비용이 늘어난 것이 요인이 되고 있다.

농약사용량은 위탁방제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약비 하락폭만큼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쌀 생산에 관한 10a당 노동시간은 4.0% 감소한 32.39 시간으로 本田耕起·정지(整地)가 2.3% 감소한 4.18시간, 모내기가 2.2% 감소한 4.55시간, 제초가 4.0% 감소한 1.69시간으로 집계됐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30>